

치매 핑계 불출석 전두환 측근에 회고록 책임 전가

민정기 "전재국과 매일 조율
문제된 표현 모두 내가 썼다"
구인장 발부 여론에 또 꼼수



이냐는 질문에 민 비서관은 "그게 무슨 속인 거냐. 원래 회고록은 저자 명의(전두환)로 나가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저자가 직접 쓴 회고록이 얼마나 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2000년부터 회고록 준비를 해오다 알츠하이머 진단 즈음해서 제게 '초고가 됐으니 민 비서관이 책임지고 완성하라'고 했다. 그 후 대통령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정기(76) 전 전두환 청와대 공보비서관이 "(회고록에서) 문제가 될 만한 표현은 거의 다 제가 쓴 것으로 보면 된다. 대통령이 쓴 표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민 비서관은 전두환(87·사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회고록을 책임 정리한 인물이다. 민 비서관은 28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출간 준비과정에서 출판사를 경영하는 전 재국씨(전두환 장남)와 매일 만나 (표현과 내용을) 다듬고 조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법을 잘 모른다. 출간 전에는 회고록이 문제될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6면>

측근의 이같은 주장은 전 전 대통령이 지난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형사재판(사자명예훼손)에 알츠하이머 투병을 핑계로 불출석한 이후 "전씨를 강제구인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 또한 책임 회피를 위한 전 전 대통령 측의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 비서관은 또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 진행자가 '조비호 신부를 가리켜 사탄, 거짓말쟁이라고 한 거는 전두환 전 대통령 위당입니까'라고 묻자 "이 표현 자체는 내가 쓴 것"이라고 말했다. 고 조비호 신부와 관련한 표현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 전 대통령이 기소되는 단초가 됐다.

진행자의 '이렇게 되면 국민들을 속인 것

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2000년부터 회고록 준비를 해오다 알츠하이머 진단 즈음해서 제게 '초고가 됐으니 민 비서관이 책임지고 완성하라'고 했다. 그 후 대통령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낮아 보인다. 그는 게 대체적인 평가를 두고 있다. 말은 바꾼데다 지난 27일 재판 불출석에 따른 비난과 사법심판 촉구 여론이 들끓어 자칫 판사가 구인명장을 발부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꼼수가 아니냐는 의심이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 21일 변호사를 통해 광주일보에 "법정자를 따르겠다. 오는 27일 전 대통령은 광주지법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재판은 하루 앞두고 "광주 법정을 믿지 못하겠다. 알츠하이머 투병이라 건강이 염려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며 출석을 거부했다.

정춘식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장은 이에 대해 "전두환은 물론 필요할 경우 전두환 일가를 줄소환해서라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전남도 전국 최초 구제역 방역 5개년 계획

17개 사업에 1555억 투입

전남도는 28일 '국내 육지 유일 구제역 청정 지역'을 지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제역 방역대책 5개년 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국내의 구제역 발생 지역과의 물적·인적교류가 늘어나는 등 바이러스 유입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위험시기인 겨울철을 앞두고 체계적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는 세부 실행을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5개 분야 17개 사업에 1555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4월과 10월 연 2회 일제접종 정례회 및 백신 약품비 지원, 소규모 농가 백신 접종 시술비, 백신 접종 스프레이 분사기 지원도 확대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원거리 자동 주사가 매년 200대 지원, 염소 보정틀 매년 100대 설치, 행정기관 방역 차량 교체, 소규모 농가 소독 지원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 확대 등의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전남도는 이번 계획 실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 '전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연내에 제정하기로 했다. /최권일 기자 cki@

"글로벌 톱 10 도약"…금호타이어 임직원 4000명 비전선포식



금호타이어는 28일 오전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차이운선 더블스타그룹 회장, 김종호 금호타이어 회장, 조삼수 노조 대표지회장을 비롯한 금호타이어 임직원 4000여명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이용섭 광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선포식'을 갖고 수십년간 축적해온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톱 10 타이어업체'로 도약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금호타이어 임직원들이 새로운 회사 슬로건인 '다 함께 새 출발, 더 나은 미래로'를 외치고 있다. >관련기사 14면 /나명주 기자 mjna@

내년 국비예산 광주 2조·전남 6조 돌파

문화·SOC 대거 반영

광주시 올보다 13% 늘고

전남도 6008억원 증액

정부 470조 슈퍼예산 편성

광주시의 내년도 국비 반영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전남도는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앞둔 2012년 이후 처음으로 6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정부가 올보다 9.7% 늘어난 470조 5000억원 규모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광주시는 역대 최대 상승폭인 지난해 대비 13%, 전남도는 10.9% 늘어난 규모가 반영됐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사업과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및 에코생태식품공원 조성은 반영되지 못하는 등 광주·전남 일부 현안사업은 여전히 정부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 4차 산업·문화관련 예산 대거 반영=내년도 정부예산안 가운데 광주시 예산은 올해 1조7803억원 대비 13.2% 늘어난 2조149억원(262건)이 반영됐다. 일자리와 연계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예산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관련 예산이 대거 반영된 점 등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분야별로는 문화·관광 사업 분야 예산은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495억원)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플랫폼 조성(22억원)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191억원) 등 60건(12228억원)이다.

성장 잠재력 육성 사업으로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364억원) ▲마이크로 의료로봇 산업성장 생태계 조성(11억원) 등 104건(2755억원)이 편성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국회 의장단, 예결위위원회,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등과 협력해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SOC 예산 증액 두드러져=전남도는 모두 6조1041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안(5조 5033억원)보다 6008억원(10.9%)이 늘어난 것이다. 해당 부처에서 삭감됐던 예산이 기재부에서 늘어난 셈이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 증액이 두드러졌다. 정부의 SOC 투자 축소 기조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1241억원(18.2%) 증액된 8031억원이 반영됐다. 주요 SOC 사업 예산은 ▲남해안 철도(목포~보성) 건설 2900억원 ▲장성·화순을 경유하는 광주 3순환 고속도로 건설 569억원 ▲여수~고흥 연륙·연도교 건설 465억원이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사업은 전남도가 건의한 500억원에 못 미치는 설계비 260억원만 반영됐다.

하지만, 김영록 지사의 주요 공약사업이었던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및 에코생태식품공원 조성,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 센터 건립, 서남해안 관광도로(완도~고흥) 건설, 흑산도 소형공항 건

설 사업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발목이 잡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증액과 추가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할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 428조8000억원보다 41조7000억원 늘어난 470조5000억원 규모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인화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식습관 바로잡고
메타그린으로 건강 더하기**

VITALBEAUTIE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건강기능식품
녹차추출물, 비타민 C
50.4g [560mg X 90정]

**입은 즐겁게
몸은 가볍게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식습관을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죠. 이제, 하루 한 번 메타그린 습관도 시작해보세요.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줘 무너진 신진대사를 바로잡아줍니다.

건강한 아름다움의 시작
VITALBEAUTIE

제품상담
구매문의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